

음악 교과에서 국제이해교육의 실천을 위한 전제*

양 종 모**

이 연구는 국제이해교육을 음악 교과에서 실천하기 위해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들에 대한 논의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를 위해 유네스코가 발달시켜온 국제이해교육의 역사와 의의를 살펴보고, 음악 교과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국제이해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분석하였는데, 현황 분석을 위해서는 유네스코 자체에서 정리한 국제이해교육의 핵심 내용을 분석 관점으로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론으로 음악 교과에서 국제이해교육의 실천을 위한 전제들을 제안하였다.

※ 주제어 : 국제이해교육, 다문화교육, 음악 교과, 음악과 교육과정, 음악 교과서

차 례

I. 서 론

II. 국제이해교육의 발달과 의미

1. 국제이해교육의 발달 과정
2. 국제이해교육의 의미
3. 국제이해교육과 다문화교육 비교

III. 음악 교과의 국제이해교육 관련 내용 분석

1. 국가 교육과정 총론
2. 음악 교과 교육과정
3. 음악 교과서

IV. 결 론

* 본 논문은 2007학년도 부산교육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으로 연구한 것임.

** 부산교육대학교

I. 서 론

중동 산유국의 석유 감산이 우리의 생활 물가를 올리며, 달러나 유로화 가치의 변화가 원화의 가치에 민감하게 작용한다. 우리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국내 분쟁은 우리의 국민 23명을 인질로 하고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를 낳았다. 밀라노나 뉴욕, 도쿄의 패션쇼는 우리가 입는 옷의 유행을 바꾸어 놓는다. 국제 사회의 작은 사건이나 변화도 우리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지만, 우리나라도 삶의 터전을 세계로 넓히면서 국제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다. 기업들은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가수나 공연자들도 세계의 무대를 찾고, 영화나 드라마는 세계의 시장을 대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의 수는 전 국민의 2%대에 육박하여 더 이상 민족의 단일성을 강조하며 타 민족에 대한 배타적 의식을 갖기는 어려워지며, 이제는 다양한 민족과 공존해야 하는 세계화의 변화 가운데 살게 되었다.

급속한 세계화로 변화에 따라 우리에게서 세계인과 더불어 사는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나라와 민족의 특수성을 견지하면서도, 조화와 상생, 관용과 균형의 보편적 가치를 가진 세계인 교육이 필요하다(문정인, 2006, 13).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 Science and Cultural Organization, 국제교육과학문화위원회)는 인류의 공존과 협력 그리고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이해교육(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을 펼치고 있다(이삼열, 2003. 9).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대량 파괴와 분열을 경험한 이후, 세계 대전의 원인이 되었던 자민족 중심주의와 외국인 혐오증, 인종주의와 파시즘, 가난과 기아 그리고 인간 고통의 모든 사회적 형식들과 원인들을 예방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필요로 하였고, 유네스코를 설립하여 그 임무를 담당케 하였던 것이다(이상주, 2000; 김현덕, 2005).

우리나라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국제이해교육을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초·중·고등학교는 국제교류, 지구촌클럽, CCAP(Cross-Cultural Awareness Program,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 교실) 등을 통해 평화로운 국제 사회를 만

드는데 필요한 소양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에서 추진되고 있는 교육은 대부분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혹은 사회과나 도덕과에 제한된 활동이다. 한명희 외(1996)나 김신일(2001) 등은 국제이해교육이 교과에 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전히 국제이해교육은 학교에서 특별히 추진되는 교육으로 인식되고 있다. 김일원(2006, 52)은 ‘국제이해교육의 실태분석을 통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의 첫째 결론으로 국제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 미흡하다고 하면서, 교과 내용에 국제이해교육 관련 내용이 부족하므로 사회나 도덕교과뿐만 아니라 전 교과 교육과정에 국제이해교육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음악 교과는 인간의 감성을 움직이는 음악을 소재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이해와 소통을 중시하는 국제이해교육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음악은 인간의 근원적이며 순수한 감성을 인간의 마음에 직접 전달하는 매체로서 언어와 풍습이 다른 사람들 간의 소통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음악 자체는 그 음악을 만든 시대나 문화권의 특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음악을 통하면 그 음악이 생성된 시대와 문화권을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음악 교과는 국제이해라는 어려운 교육 목표를 재미있게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음악을 통한 국제이해교육은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윤명원 외(2001)와 이소영(2006) 등의 국제이해교육과 관련한 교과서 분석 연구 이외에 실제 학교 음악 수업에서 국제이해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발견되지 않는다. 일부 학교의 음악 교과 수업에서 외국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외국의 음악을 학습하는 내용이 포함되고 있지만 그것은 대부분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사례들이다.¹⁾

국제이해교육이 중요한 만큼 모든 교과에서 국제이해교육을 실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적인 소통 능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어를 배

1) 국제이해교육과 다문화교육은 대상이나 교육의 목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별개의 교육 사업으로 인정한다. 2007년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서울 경동초등학교, 부산 주감초등학교 등 전국에 12개의 초등학교를 지정하여 다문화교육 연구학교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는 음악 교과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연구자가 국제이해교육 시범학교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악 교과에서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우는 것처럼 외국의 음악을 학습해야 할 것이며, 국제이해교육의 관점에서 그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음악 교과에서 국제이해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들에 대한 논의를 목적으로 한다. 논의를 위해 국제이해교육의 변천과 개념 그리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 국제이해교육과 함께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다문화교육의 개념을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국제이해교육의 주요 내용에 근거하여 음악 교과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국제이해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결론으로 음악 교과에서 국제이해교육의 실천을 위한 전제들을 제안하였다.

Ⅱ. 국제이해교육의 발달과 의미

1. 국제이해교육의 발달 과정

국제이해교육은 1925년 발달심리학자로 유명한 피아제(Jean Piaget) 등이 세운 국제교육연구소(International Bureau of Education)를 그 효시로 본다(이삼열, 2003, 13). 국제교육연구소는 1929년 제네바에 본부를 두었던 국제연맹(League of Nation)의 도움을 얻어 준 국제기구적 성격의 정부간 협력기구로 개편되어 발전하였다. 당시 국제교육연구소를 설립한 교육학자들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정보 교환을 통하여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교육 체계를 고안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국제이해교육은 유네스코의 설립과 함께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1946년 11월 런던에서는 유네스코의 창립총회가 개최되는데, 당시 채택한 헌장에서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되므로, 평화를 지키는 일도 인간의 마음에서 구축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유네스코의 사명을 평화를 지키는 일에 둔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국제이해교육을 도입하여 강화할 것을 결의했고, 여러 가지 실천 프로그램을 만들

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독일과 이웃 나라들 사이의 많은 편견과 오해, 유대인들에 대한 미움이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전후의 복구와 화해를 위해서도 서로 원수가 되었던 이웃 나라 사람들과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 대한 이해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서는 평화의 질서와 토대를 마련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이삼열, 2003).

유네스코는 세계평화를 위해 1953년부터 ‘유네스코 협동학교 사업(ASP, Associated School Projects)’을 통해 각국에서의 학교 단위의 국제교육과 교환연수, 방문여행 등 국제이해교육사업을 발전시켰다. 1974년에는 보다 체계적인 지침을 위해 ‘국제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적인 자유에 관련된 교육 권고’²⁾를 발표했다. 이 권고는 국제이해나 평화는 사회·정치적 제도가 서로 다른 국가와 민족들이 서로 우호관계를 맺고, 서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천명한다. 그리고 1994년에는 전 세계 교육부장관들이 모여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의 통합적 실천 요강’³⁾을 만들었으며, 이 문서의 요지는 폭력,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종교적 불관용, 여러 형태의 테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하여, 전 세계 교육 장관들은 평화의 문화를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을 강화하며, 이를 실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행에 옮기겠다는 것이었다.

1995년은 ‘관용(tolerance)의 해’로, 2000년을 ‘평화의 문화(culture of peace)의 해’로, 2001년을 ‘문명 간의 대화(dialogue among civilization)의 해’로 정해 세계의 교육을 자극해 왔다. 그리고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10년(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으로 정해 세계의 교육이 세계 평화와 인권의 증진에 힘을 함께 모으도록 노력해 오고 있다(이삼열, 2003, 14~20).

2) Recommendation concerning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Peace and Education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3) Integrated Framework of Action on Education for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cy

특히 2000년에는 국제이해교육을 위해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을 우리나라에 설립하였다. 이 교육원은 설립 이래, 교사훈련과 자료개발을 통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의 문화를 진작시키고 회원국의 국제이해교육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해 왔으며, 해당 지역의 교사, 교육자, 전문가, 시민단체 지도자와 관련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강대근⁴⁾, 2006).

2. 우리나라에서 국제이해교육의 의의

국제이해교육은 세계의 사업이지만 우리나라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제이해교육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는 전쟁의 경험을 통해 국제이해교육이 지향하는 평화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다.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의무로 이해된다. 우리나라는 1950년에 남과 북이 전쟁을 겪으면서, 당시 인구의 약 1/6이 사망하고, 1/4이 이산가족이 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현재도 우리는 휴전을 하고 있어 언제 그 불행이 재발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 있다. 우리는 전쟁이 인류가 일구어 놓은 위대한 업적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마저 송두리째 파괴하고 날려 버린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전쟁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다.

둘째, 세계와 우리의 인구 구성은 국제이해교육의 필연성을 지원하고 있다. 유엔은 태어난 국가를 떠나 외국에 거주하는 인구가 2005년 전 세계적으로 1억 9100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다(국제이주기구(IOM), 2005). 이 통계는 교통과 산업의 발달에 따라 노동력도 상품과 자본처럼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상당한 인구가 국경을 넘고 있고, 세계의 많은 지역이 다양한

4) 강대근은 2004년 12월부터 2007년 7월 현재까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원장이다.

민족이 함께 살고 있는 다문화 사회로 구성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우리나라도 체류 외국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1990년 4만 명이던 국내 체류외국인 수는 2006년 5월에 전체 인구의 1.1% 인 53만 명으로 증가했고, 2007년 8월 현재 체류 외국인(단기 여행자 포함)의 수가 전체 인구의 2% 수준인 100만 명을 넘었으며, 그 중 장기 체류 외국인(등록 외국인)도 72만 4967명으로 1.5%를 넘었다. 또한 지난 1996년 1800만 명이던 출입국자 수가 2006년 3600만 명으로 약 2배 증가했고 2010년에는 50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법무부, 2007). 총 결혼 건수 대비 국제결혼 비율도 2000년 3.7%에서 2005년 13.6%로 증가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은 무려 35.9%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출생률의 감소에 따른 노동 인구의 부족 등의 이유로 외국인의 유입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행정자치부, 2007). 최근에는 북한에서 이주한 새터민도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셋째, 우리 경제의 외국 의존도 수준은 국제이해교육이 선택이 아님을 말해 준다. 한국은행은 2006년 중 국내 제조업체의 수출 의존도가 43.9%라고 발표하였다(한국은행, 2007). 문화 콘텐츠 사업도 한류 바람을 타고 외국을 주요한 시장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의 값싼 소비재는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상품의 교역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그것은 모두 우리의 세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늘날 우리는 국가와 민족의 개념마저 점차 해체되거나 모호해지는 지구촌화(global village), 탈국가화(denationalisierung)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는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ies)를 형성하며, 다문화사회에서 함께 사는 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이삼열, 2003, 22).

전쟁이라는 과거의 불행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 다문화적 구조 속에서 공존의 지혜를 발휘하기 위해, 그리고 세계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세계의 평화와 인류 공존을 목적으로 하는 유네스코의 국제이해교육이 우리의 실천 과제가 되고 있다.

3. 국제이해교육과 다문화교육의 비교

국제이해교육이 종종 다문화교육과 혼란스럽게 논의될 때가 있다. 이 둘은 다른 배경에서 출발하였으며, 교육의 목적이나 내용 그리고 대상에서도 차이가 있다. 국제이해교육과 다문화교육은 무엇이 같고 다른지 살펴본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제이해교육은 유네스코의 설립과 함께 시작되어 지구촌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평화를 위한 교육이다. 그러나 다문화교육은 영국, 미국, 독일과 같이 다종족으로 구성된 나라에서 자국의 문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여 사회 통합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시작되었다. 영국의 교육과학부는 1977년 ‘우리 사회는 다문화 다인종 사회라고 하면서, 교과과정도 현재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와 인종들에 대한 이해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라고 명시하였다. 이후 교과과정도 다문화주의를 반영하도록 개편되었고, 다문화 교육정책은 1980년대 이후 유럽통합과 더불어 새롭게 강화되었다(김태리, 2004, 142). 미국은 1960년대 시민운동으로 시작하여 인종의 특성을 녹여 미국적으로 만들겠다는 도가니 개념(the Melting Pot Concept)과 함께 문화적 특성을 인정하는 문화적 복수주의(Cultural Pluralism)를 기초로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다(김종석, 1984). 그리고 독일은 1960년대 많은 외국인 노동자(특히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등)의 유입에 따른 외국인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면전에서 독일교육학계는 외국인교육학(Interländerpädagogik)이라는 학문영역을 발전시키고, 이 학문영역에서 상호문화성(Interkulturalität)에 바탕을 둔 ‘상호문화적 교육’(또는 간문화적 교육: Interkulturelle Erziehung)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민경훈, 2004, 434).

다문화교육은 나라에 따라 간문화적 교육, 상호문화적 교육 등 몇 가지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모두 자국의 다종족 구성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문화를 지배하여 획일화시키려는 것이 아닌, 서로간의 관용적 태도와 다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상호간에 문화적 상관성을 동시에 인정하면서,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교류하고 접촉한다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민경훈, 2004, 434). 한국 사회에도 이주노동자, 새

터민, 국제결혼 이주 여성, 코시안 등과 같은 다인종 다문화의 새로운 사회 구성원이 점차 증가하여, 본격적으로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어(오성배, 2006, 137), 영국, 미국, 독일 등과 함께 우리나라도 다종족 구성에서 오는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국제이해교육은 세계의 평화에 목적으로 두고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이지만 다문화교육은 다종족 구성의 집단의 공존에 목적을 두고 제한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두 가지가 교육의 목적이나 대상을 달리한다. 그러나 김현덕(2007, 6)은 실제로 이 두 가지 교육이 실천 과정에서 크게 구별되지 않는다고 한다. 실제로 교실에서도 국제이해교육이나 다문화교육 모두 다양한 문화를 학습하고 있으며, 문화상대적인 관점에서 관용을 중시하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별 다른 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제이해교육이 다문화교육에 비해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우리 사회의 인종 구성의 변화로 인한 다문화화는 다문화교육의 실천을 강조하게 되었고, 국제이해교육과 다문화교육이 공존하면서 혼란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국제이해교육을 위해서는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시범 학교나, 협동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교육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활동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갈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⁵⁾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국제이해교육은 외국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을 중심으로 하지만 다문화교육에서는 외국의 관련 내용과 함께 국내 문화도 중시하고 있다. 교육 방법에서 전자는 외국인 방문 교육 프로그램이나 국제 교류 등을 활용하지만, 후자는 한국어교육 및 방과 후 학교 지원, 귀국자 특별학급 운영, 한국문화 체험캠프 운영, 반 편견 교육 장학자료 발간 등 주로 국내 활동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5)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 전국에 12개 교를 지정하여 다문화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중부교육청에서는 2007년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역시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청은 국제이해교육 시험학교(반포고등학교, 2004; 지구촌클럽활동; 광장중학교, 2006; 몽골봉사단 운영; 수송초, 2006; CCAP; 관악초, 2007; 국제이해반, 창원중앙여고, 2006; 동아리활동 등)를 운영하였다. 정부에서는 국제이해교육과 다문화교육을 구분하여 사업을 펼치고 있다.

<표> 국제이해교육과 다문화교육의 비교

	국제이해교육	다문화교육
기 원	UNESCO의 설립과 함께 세계의 평화를 위해 시작	미국, 영국, 독일 등의 다종족 인구 구성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
교육 대상	모든 학생	국제결혼가정 자녀, 외국인 자녀, 새 이민 자녀, 귀국 학생 등
교육 목적	국제화, 평화로운 세계, 인권 교육, 다문화, 지속 가능한 발전	문화공동체 의식 형성을 통한 사회 통합의 토대 마련
교육 내용	외국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이해	국·내외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이해(국내의 사회와 문화 강조함)
교육 방법	CCAP(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 교실), 국제 교류, 외국 문화 직접 체험	한국어 교육 및 방과후 학교 지원, 귀국자 특별학급 운영, 한국문화체험 캠프 운영, 반편견 교육 장학자료 발간 보급,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어울 마당
사업 추진 형태	국제이해교육 시범학교, 협동학교사업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활동 지원(교육인적자원부, 시도 교육청, 서울시 중부교육청), 시범학교

음악 교실에서는 두 가지가 더 분명하게 구별된다. 국제이해교육은 외국의 음악을 통해 국제 사회를 이해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어 ‘외국 음악’이 강조되는 데 반해, 다문화교육에서는 국제 사회의 다양한 음악과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음악’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재도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실에서는 여러 종족의 학생들의 뿌리와 관련된 국가나 민족의 음악을 배우는 동시에 사물놀이나 민요 등 우리의 전통 음악에 대한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이해교육과 다문화교육은 기원과 개념 그리고 실천 방법들에서 차이점과 유사점이 모두 있다. 이것은 서로 배타적이기보다는 보완적 성격을 가

지고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내용과 방법론이 다 문화교육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고안하고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김현덕, 2007, 8).

Ⅲ. 음악 교과의 국제이해교육 관련 내용 분석

학교의 교과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국정 교과서나 검인정 교과서를 활용하여 가르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음악 교과에서 국제이해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문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교과서에 관련 학습 자료와 지도 방법 등이 담겨 있어야 한다. 이 장은 2007 국가 교육과정 총론과 음악과 교육과정,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그리고 음악 교과서 등에서 ‘국제이해교육’과 관련된 목표, 내용, 방법 등을 분석한다. 정부 문서 등을 대상으로 분석하며, ‘국제이해교육’의 핵심 요소를 분석기준으로 활용한다.

유네스코는 국제이해교육의 핵심 요소를 다음의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김현덕, 2003, 58). 첫째, 자기중심적 세계관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세계관과 상반된 세계관을 인정하는 세계적 시각 및 관점(global perspectives)이다. 여기에는 자기중심적 세계관에서 탈피하고 다양한 세계관 또한 상반된 세계관의 인정, 인간의 기본적 욕구, 행동, 관심, 경험의 유사성에 대한 인식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는 문화간 이해(cross-cultural awareness)를 위한 교육이다. 이는 각 나라의 문화 및 가치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 문화의 상호 비교, 이를 통한 문화와 가치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 타문화의 관점에서 자기문화 조망, 문화간 상호 작용을 통한 세계문화의 개념 형성, 타문화를 수용하는 태도, 전통 및 자기 문화에 대한 태도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서는 문화상대주의적인 관점을 강조한다.

셋째, 세계인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세계적인 문제나 이슈(global problems and issues)에 대한 교육이다. 여기에는 평화와 안보의 문제, 개발

과 관련된 문제, 인류 환경에 대한 문제, 인권의 개념 등이 포함된다. 그 구체적인 예로 세계를 연결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생태적 차원에서의 교육 등이다. 넷째, 세계 각국인을 연결시키는 세계체제를 이해하는 교육이다. 세계체제란 국제기구를 의미한다. 국제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기관을 이해한다는 것은 국제 문제의 해결 과정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세계에 대한 실질적인 안목을 갖게 하는 것이다.

1. 국가 교육과정 총론

국가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교육의 목적과 추구하는 인간상 그리고 운영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총론에서 국제이해교육과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교육에서 국제이해교육의 이행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현재 국가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교육의 목적으로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이해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인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공존과 유사한 의미를 띤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에는 개인의 역량을 제고하는 내용 이외에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이라는 인류와 사회의 발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교육의 지향점이 ‘국제이해교육’과 별개가 아님을 말해준다.

국제이해교육을 구체적으로 있는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국가 교육과정 총론 문서의 ‘학교’의 ‘운영’ 항이다. 학교의 운영에 유의할 점 중, 범 교과 교육을 강조하면서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등과 함께 ‘국제이해교육’과 ‘다문화교육’을 포함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b, 22). 또한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에 음악과의 내용 중 ‘범 교과 학습 내용의 반영’이라는 항에 ‘국제이해교육’을 제시하여 교과서의 내용으로 ‘국제이해교육’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c).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총론, 음악과 교육과정 그리고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에 모두 국제이해교육과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음악 교과에서 국제이해교육의 실천에 근거가 충분함을 의미한다.

2. 음악 교과 교육과정

국가 교육과정의 총론에서는 국제이해교육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음악 교과에서는 그 내용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과 2007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 내용, 교수학습 방법 향을 중심으로 문서를 분석한다.

1) 성격에서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음악 교과의 목적을 음악성과 창의성 계발, 궁극적으로는 ‘전인적 인간을 기르는데’ 두고 있다. 교과의 목적을 교과가 지향하는 바로 이해한다면,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밝히고 있는 음악 교과가 지향하는 바는 우리나라나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담당해야 할 의무나 실천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기보다는 학생들 개인의 능력 신장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7 음악과 교육과정 역시 음악 교과의 목적으로 국제이해교육과 관련된 세계 평화 혹은 세계인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음악 교육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이나 2007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 모두는 국제이해교육에 대한 내용 즉 세계적 시각 및 관점, 문화간 이해, 세계적인 문제나 이슈 그리고 세계 체제 등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2) 목표에서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음악의 구성 요소 이해’, ‘음악성과 창의성 기르기’,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 기르기’ 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음악을 강조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국제이해교육의 내용과 거리가 있다.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 기르기’가 세계에서 음악적 생활을 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국제이해교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007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음악의 아름다움 경험’, ‘음악의 표현과 감상’, ‘음악 개념의 이해’, ‘음악을 즐기는 태도 배양’ 등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도 음악 자체에 대한 지식과 활동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국제이해교육과 관련된 세계적 시각 및 관점이나 문화간 이해 등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에서는 음악 학습에서 얻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수준의 음악적 능력을 제시함으로써, 세계이해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짓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특성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음악 교과의 목표에 음악을 통해 이웃 나라의 사회와 역사 그리고 문화 등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별히 독일의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에서는 ‘문화에 대한 폭넓은 안목’, ‘역사적 사회적 관점에서의 이해’, ‘문화사와 정신사의 일부분으로서의 음악사 이해’ 등을 포함하여 음악 교과가 음악에 한정되지 않고 문화 전체를 이해하는 방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도 ‘다양한 시대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특정 장르와 양식의 음악의 변별력 이해, 역사적 지각력 이해, 다른 사람들 이해, 사회성 계발’ 등을 포함하여 음악을 통한 다양한 문화 즉 세계의 문화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양종모 외, 2001, 17~20).

유럽의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문화나 문화사 정신사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방편으로 음악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다른 관점에서 음악 교과에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 주며, 우리나라의 음악 교과의 목표가 인류나 국제이해보다는 음악 자체에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케 한다.

3) 내용에서

음악 교과에서 국제이해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내용’에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개념과 활동 그리고 악곡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교육과정의 ‘내용’에서 국제이해교육의 관련 내용 포함 실태를 분석한다.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은 이해와 활동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이해’ 영역에서는 리듬, 가락, 화성, 형식, 셈여림, 빠르기, 음색 등 다양한 음악 요소를 제시하고, 각 요소별로 구체적인 하위 요소를 지정하여 그런 요소가 포함된 다양한 음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음악의 다양한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세계의 다양한 음악을 경험할 수 있는 기초적인 체계를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진모리, 메기고 받기, 시김새 등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요소를 제시하여 음악적 모국어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의 다양한 음악과 함께 우리의 전통 음악이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이해된다.

그리고 ‘활동’ 영역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 부분으로 구분하는데, 창작 외의 모든 부분에서 “다양한 악곡을 노래 부른다.” “다양한 악곡을 연주한다.” “다양한 악곡을 듣는다.” 라고 진술하여 ‘악곡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6학년에는 감상에서 ‘다양한 문화권의 곡’, 7학년부터 10학년까지는 가창, 기악, 감상에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제시하여 세계 여러 지역의 음악을 활동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에서는 다양성을 강조함으로써 다양한 지역이나 민족의 문화 이해를 중시하는 국제이해교육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2007 음악과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2007b)의 ‘내용’에서는 ‘활동’, ‘이해’, ‘생활화’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활동’에서 초등학교 3학년은 아시아, 4학년은 유럽, 5학년은 아메리카, 6학년은 아프리카 등 지역을 명시하여 세계의 다양한 음악을 단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해’에서는 하위 영역을 두지 않고 음악의 다양한 요소와 음악의 쓰임새나 여러 종류를 제시함으로써 음악에 대한 본질적인 지식 이외에 관련적 지식도 이해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2007 음악과 교육과정이 음악을 통해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에서는 다양성을 강조함으로써, 세계의 다양한 음악과 관련한 지식이나 악곡 그리고 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교수·학습 방법에서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과 2007 음악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 항에는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두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국제이해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개인차의 고려, 통합지도, 실음 중심, 자기 주도적 학습, 다양한 지도법 활용, 음악의 역할과 가치 이해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통합지도는 음악과 사회, 음악과 문학, 음악과 미술 등의 통합 수업의 의미하는데 이는 세계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국제이해교육의 방법론으로 제시되고 있는 ‘총체적 이해’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음악의 역할과 가치 이해는 세계 문화에서의 음악을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비판적 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을 활용할 것으로 보여, 이는 국제이해교육의 방법 혹은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7 음악과 교육과정도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과 대체로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해 방법’에서 “역사,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폭넓게 이해하고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음악사에 대한 학습은 악곡, 인물, 사회 문화적 배경 등을 다룸으로써 폭넓은 이해와 시각을 갖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등을 제시하여 음악을 통한 인간과 사회 이해 방법을 활용케 하고 있다. 국제이해교육의 내용과 관련한 세계적 시각 및 관점을 가지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가치 형성 등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음악과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국제이해교육의 내용과 방법적 원칙과 관련된 의미들이 쉽게 발견된다.

3. 음악 교과서

현행 음악 교과서에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소재들이 얼마나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음악 교과서에서의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소재란 악곡의 국적과 악곡에 대한 지식과 관련이 있다. 악곡의 국적은 우리나라 악곡과 외국의 악곡의 수나 비중과 그 악곡의 특성에 대한 것이며, 악곡에 대한 지식

은 악곡과 관련한 설명에 국제이해를 위한 지식이 얼마나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사항이 논의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음악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세계 다양한 지역의 음악의 비중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그 실태를 정리하였다.

독일의 음악 교과서에는 서아프리카의 잠비아 민속음악, 뮤지컬, 영화 음악, 록, 레게, 랩, 헤비 메탈 등 다양한 문화권에서 출현하는 다양한 지역의 음악들을 싣고 있다(Pütz, W., & Schmitt, R., 2003). 이 교과서의 지면은 대부분 외국의 음악이 차지하며 독일의 전통음악인 소위 클래식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캐나다나 미국은 다문화 교육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음악 교과서에는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고르게 싣고 있다. 일본의 음악 교과서에서는 일본 음악이 외국 음악보다 약간 많은 비율로 나타나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55%와 45%, 중학교는 51%와 49% 정도이다. 그리고 외국 악곡은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26개국의 외국 악곡이 나타나며,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18개국의 악곡이 나타난다(이지선, 조효임, 2005, 141). 일본의 음악 교과서에는 다양한 국가의 악곡이 45~49%차지하고 있어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의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음악 교과서에는 세계의 음악이 7개 나라의 총 18곡(전체의 15%) 제시되어 있다(한지선, 2002, 44).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는 전체 9개 종의 교과서 전체에 21개 나라의 음악이 실려 있으며, 하나의 교과서에는 4-11개 국가의 악곡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의 음악은 전체 곡 중 15-30%를 차지하고 있다.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는 지역적으로 아시아 14.2%, 아프리카 4.8%, 아메리카 4.8%, 유럽 76.2%의 비율로 분포되어 있어 유럽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 지역적 다양성도 부족한 실정이다(한지선, 2002, 46)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과 2007 음악과 교육과정 모두에는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강조하여 세계의 다양한 음악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지만, 교육과정을 구현하고 있는 음악 교과서에서는 외국의 악곡이 비중이 높지 않으며, 지역도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IV. 결 론

이 연구는 국제이해교육을 음악 교과에서 실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들을 논의한 것이다. 연구를 위해 국제이해교육의 역사와 의미를 살펴보고, 핵심 요소에 근거하여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론으로 음악 교과에서 국제이해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전제로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음악 교과는 국제이해교육을 실천하는 데 적합한 교과임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음악 교과는 음악적 능력을 신장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동시에 다양한 세계의 음악을 경험함으로써 인류 사회와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교과이다. 지역의 화합이나 올림픽과 같은 세계적인 행사에서 음악이 중심 역할을 하는 것에서도 음악의 인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음악 교과는 인류의 평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따라서 국제이해교육의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제이해교육 시범학교에서 프로그램에 발견되지 않으며,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음악 교과에서 국제이해교육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음악 교과는 학생들의 문화상대주의적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교과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음악 교과에서는 세계의 여러 나라 음악을 다룬다. 이 때 각 나라 음악에 대해 자체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지도한다. 미국이나 필리핀의 민요를 서로 차별하지 않고 각각에서 고유의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한다. 종래에는 음악 교과서의 대부분의 악곡이 클래식 음악으로 구성되었으나 최근에는 대중음악의 비중을 높여, 문화우월주의적인 시각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다. 세계의 문화와 개인에 대한 존엄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음악 교과에서는 세계의 음악에 대한 고유한 특성을 지도하게 된다. 학생들은 음악 교과를 통해 우월, 멸시, 저급, 고급 등의 차별적 의식을 버리고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을 직접 체험할 것이다.

셋째, 음악의 역할과 기능 이해에 대한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을 개발해

야 한다. 음악을 통한 국제이해교육은 다양한 나라의 음악을 경험하면서 해당 국가의 고유한 음악적 특성뿐만 아니라 그 음악과 관련있는 지식이나 사연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리듬, 가락, 형식 등 음악의 개념과 함께 그 음악이 만들어진 과정, 사회에서의 음악의 기능이나 역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2007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음악의 다양한 개념들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음악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기능'이라는 단어로 간단하게 제시되고 있다. 국제이해교육을 음악과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음악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부분을 더 확대하고, 음악을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음악 교과서에서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음악을 실어야 한다. 현행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외국의 악곡은 15% 정도이며, 이는 한 개 학년에 6곡정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음악 문화를 강조할 때, 기존의 음악 교과서의 전체 악곡 수를 유지하면서 우리 음악 문화를 강조했기 때문에 외국의 악곡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음악 교과에서 국제이해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악곡을 대폭 늘려야 한다. 특히 다양한 외국의 민요를 실을 필요가 있다. 일본의 교과서에는 외국의 악곡을 50% 정도 실고 있으며, 미국이나 캐나다 혹은 독일과 같은 나라의 음악 교과서에서는 한 나라의 음악에 많은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 우리는 전통을 강조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우리 음악의 비중을 높이는 데에 치중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 국제화 시대에 맞는 교육을 펼쳐야 하고 음악 교과서에 다양한 국가의 음악을 고르게 실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사는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음악에 대한 고유의 가치를 알고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국제이해교육은 관용과 이해를 근본으로 삼고 있다. 어느 나라의 어떤 문화적 현상이건 그 자체의 의미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교사는 음악을 특정한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고 그 자체의 특성을 살려 볼 수 있어야 한다. 가락없이 리듬만 있는 음악, 화성이 없이 단선률 음악, 반복이 많은 음악 등 세계의 많은 단순한 음악들에서도 그 자체의 미적 특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교사는 세계의 다양한 민족음악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며, 그것을 위한 다양

한 연수가 필요하다.

이상의 전제들은 음악과에서 국제이해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천하는데 앞서 논의해야 할 점들이다. 실제로 실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술한 논의 이외에도 다양한 외국 악곡의 수집과 선별, 악곡 분석, 수업 방법, 평가 방법 고안 등 실질적인 후속 연구가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이해교육의 음악 교과에서의 실천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대근 (2006).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www.kr.unescoapceiu.org.
- 교육부 (1999).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2종 교과용 도서 집필상의 유의점 (고등학교).
- 교육인적자원부 (2007a).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계획. 2007. 6. 05, www.moe.go.kr.
- 교육인적자원부 (2007b).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 교육인적자원부 (2007c). 중학교 검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 교육인적자원부 (2007d). 2007년도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운영 계획.
- 국제이주기구 (2005). 세계이민백서.
- 김신일 (2001). 지구촌 시대의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 김일원 (2006). 국제이해교육의 실태분석을 통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 국제교육교류 활동을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 제28회 교육연구논문.
- 김종석 (1984). 미국의 다문화교육. 미국학논문집. 충남대학교 북미주연구소. pp. 35~61.
- 김태리 (2004). 영국에서의 국제이해교육. 국제이해교육 13호, pp. 140~151.
- 김현덕 (2003). 국제이해교육의 영역과 교육과정. 세계화 시대의 국제이해교육.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한울아카데미. pp. 56~72.

- 김현덕 (2005). 교실에서의 국제이해교육. 교육과학사.
- 김현덕 (2007). 국제이해교육과 다문화교육. 2007년도 제2차 국제이해교육 포럼.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pp. 2~13.
- 문정인 (2006). 균형, 지성 그리고 경쟁력에 역점을. 국제이해교육 제16호, pp. 8~13.
- 민경훈 (2004). 상호문화적 음악교육의 의미와 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 음악과민족, Vol.- No. 28.
- 법무부 (2007). 출입국관리 현황 자료. www.immigration.go.kr.
- 안재신 (2001). 유아 음악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다문화적 접근의 프로그램 개발. 음악교육연구, Vol. 21, No. 1.
- 양종모 외 (2001). 음악과 교육과정 국제 비교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01-33.
- 양종모 (2007). 한국과 일본의 음악 교과서에 나타난 자국음악과 외국음악. 후쿠오카 교육대학교 발표 자료. 2007. 6. 8.
- 오성배 (2006). 한국 사회의 소수 민족(ethnic minority), ‘코시안’(Kosian) 아동의 사례를 통한 다문화 교육의 방향 탐색. 교육사회학연구 제16권 제4호, pp. 137~157.
-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2005). 함께 배우고 나누는 세계의 교실: 아태지역의 국제이해교육 수업 모형 제1권. 한울.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 (1996). 학교에서의 국제이해교육. 오름.
- 윤명원 외 (2001). 음악과 교과서 교육과정 분석. 중학생을 위한 국제이해교육 분석.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 이삼열 (2003). 국제이해교육의 철학과 역사적 발전. 세계화 시대의 국제이해교육.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한울아카데미. pp. 8~29.
- 이상주 (2000). 지구촌 사회와 국제 이해 교육. 국제이해교육 방법론(유네스코위원회 엮음) 사람생각. pp. 5~16.
- 이소영 (2006). 초등학교 저학년 국제이해교육 내용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지선, 조효임 (2005). 일본음악교과서 음악이 주는 선물에 나타난 다문화

- 교육 실태. 민족음악학회. Vol-No. 29, pp. 133~161.
- 정두용 외편 (2002). 지구촌시대의 국제이해교육. 정민사.
- 한국은행 (2007). 2006년 기업경영분석 결과. 2007. 5. 15. 보도자료.
- 한명희 외 (1996). 국제사회와 국제이해교육. 정민사.
- 한지선 (2002).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음악교과서의 다문화주의 반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함희주 (2003). 초등학교교육에서 다문화적 음악교육 적용가능성 탐색. 음악교육연구 Vol. 25.
- 행정자치부 (2007). 2006년 국내 거주 외국인 실태조사 결과. 2007. 5. 14. 보도 자료.
- Adams, J. M., & Carfagna, A. (2006). *Coming of Age in a Globalized World: The Next Generation*. Kumarian Press.
- Baker, D. P., & Wiseman, A. W. (Eds.)(2005). *Global Trends in Educational Policy: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Education and Society*. JAI Press.
- Burtonwood, N. (2006). *Cultural Diversity, Liberal Pluralism and Schools: Isaiah Berlin and Education: Routledge International Studies in the Philosophy of Education*. Routledge.
- Hayden, M. (2006).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Education: International Schools and their Communities*. Sage Publications Ltd.
- Merryfield, M. M. et al. (Eds.)(1997). A framework for teacher education in global perspectives, Preparing teachers to teach global perspectives, *Handbook for teacher education*. CA.
- Puetz, W., & Schmitt, R. (2003). *Hauptsache Musik*.
- Szego, C. K. (2005). Praxial Foundations of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Praxial Music Education*(ed. David J. Elliot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Inc.
- Pütz, W., & Schmitt, R. (2003). *Hauptsache MUSIK*(7/8). Düsseldorf: Ernst Klett Schulbuchverlag Leipzig.

ABSTRACT

Presupposition for Education of International Understanding in Music Education

Jong-Mo Yang

This research is aimed at searching for the implementation method of international understanding education, which is being driven by UNESCO, by using music subject. For this purpose, researcher took a look at the international understanding education having been developed by UNESCO and made an analysis of the contents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understanding education of a music subject and searched the implementation method of the international understanding education. The research method was carried out through the literature research and those literatures were analyzed based on the viewpoint of UNESCO-arranged meaning of the international understanding education, Kim, Hyeon-Deok's contents of the international understanding education, finally drawing the implementation method of a music subject using precedents of several countries' education course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including the premise for implementing the international understanding education using a music subject:

First, in order to implement the international understanding education in a music course, the curriculum including its purpose, contents and methods and the majority of a text require revising and complementing.

Second, The character and objective of a music subject should contain the contents embracing the international understanding education mentioned in a general summary of the national education program. Third, the currently used music subject contents give a high weight on essential knowledge; however it's necessary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two by giving more weight on its relative knowledge. Fourth, our country's musical pieces and foreign musical pieces should be adjusted by putting a proper weight in music, education course, and texts. Fifth, in order to implement the international understanding education using a music subject, the personnel in charge have to make an approach with a viewpoint of culture-relativity acknowledging a variety of races or nations' music culture as it is.

Key Words: international understanding education, multi-cultural education. music subject, music curriculum, music textbook